

쿠킹 프로젝트

■ Part1: 맛으로 어울린다. (감성 중심의 쿠킹 활동) 12/1(목)

■ 요리명: 이것 저것 요리 조리 잡채!!

조리사님: 당면 삶기, 생재료 준비, 재료 익히기, 간장, 참기름, 깨소금....

1. 잡채에 들어갈만한 재료를 이것저것 준비한다.

예) 파프리카, 부추, 콩나물, 팽이버섯, 당근, 양파, 느타리버섯, 시금치, 청경채, 새우살
다양한 재료를 준비한다.

익히지 않은 생재료와 물에 데쳐 익힌 재료를 준비한다.

2. 쿠킹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정해서 테이블을 셋팅한다. (테이블보 깔기)

3. 준비된 재료를 커다란 접시에 따로 따로 셋팅해둔다.

4. 아이들이 모이면 다함께 자기 그룹의 이름을 정한다. (혼합연령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정해진 자기 그룹의 이름을 익히지 않은 생재료로 (생재료는 감자나 무 등 몇 가지를 더 추가해도 좋다.) 테이블 위에 구성한다.

-그룹의 이름을 요리, 재료,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그 이름을 보드판에 크게 써준다.

-보드판에 써둔 이름을 보고 아스테이지 또는 연한색의 방수천 위에 매직으로 그룹의 이름을 쓴다.

-그 이름을 따라 그 위에 준비된 재료들을 구성하면서 우리 테이블의 이름을 꾸민다.

5. 팀의 이름이 생야채로 완성되면... 익힌 재료들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자신이 함께 나눠먹을 잡채를 버무리 완성해본다. (큰 볼에 재료를 넣고 한꺼번에 버무리기)

6. 만들어진 잡채는 자신이 가지고온 예쁜 접시에 담는다.

■ 활동 포인트

1. 다양한 재료 준비하기-익힌것과 익히지 않은 것 분류해서 접시에 준비하기

2. 테이블 위에 자신들의 팀 이름을 재료로 구성하기 (구성 시 사용하는 재료는 익히지 않은 것이고 잡채를 만들어 버무리는 것은 익힌 재료를 사용함)

-아이들이 다함께 자신들의 팀 이름을 재료로 독창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3. 구성하기 전에 익힌 재료와 익히지 않은 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색 비교, 촉감 등....

- 아이들이 말한 탐색언어는 보드판에 바로 바로 기록해주기
- 결론 도출하기: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과 지식을 상호작용을 통해 정리해보기
- 4. 잡채를 버무리기 전에 재료를 5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 선택 시 가장 큰 6,7세 어린이들이 [우리가 만든 잡채]를 간단하게 도식하기
- : 도식의 방법은 하얀 도화지에 동그라미 볼 그린 후 그 안에 우리 팀에서 넣을 5가지의 재료를 간단하게 그리기
- 2차 상징 방법 진행: 자기 팀의 도식을 보고 일회용 접시에 각 재료의 이름을 영어 단어로 쓰기 (영어 단어는 EVA카드에 써서 올리기)
- 2차 도식은 6세반 어린이들만 교실에서 따로하기
- 5. 나의 접시에 예쁘게 담고 잘 차리기
- 6. 다함께 즐겁게 먹기

■ 확장 활동 (시간이 되면 해도 좋습니다.)

1. 파스타면 삶은 것! 물감으로 물들이기 놀이
 - 파스타면 삶아서 식힌 후 물감을 짠 볼에 버무리기 놀이를 하면 됩니다.
2. 파스타면 삶은 것으로 구성놀이 하기
 - 물이든 파스타면을 곧장 어떤 그림을 연상하면서 모양 만들기를 합니다.
 -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하면 됩니다.